

58년 ‘우암동 소풍’ 끝내고 별이 된 가난한 자의 대부

‘우암동의 성자’로 불리던 하 안토니오 몬시뇰(가톨릭 명예 고위 성직자)이 지난 14일 새벽 95세 일기로 선종했다. 이날은 그가 독일 베르팅겐에서 태어난 지 정확하게 95년째 되는 날이었다. 1958년 4월 사제 서품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물결은 부산으로 건너와 이듬해 우암동 동향성당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면서 일생을 우암동에서만 생활했다. 가난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떠난 하 안토니오 몬시뇰의 생애를 통해 남구와의 깊은 인연을 짚어본다.

하 안토니오 몬시뇰은 1922년 10월 14일 독일 바이에른주의 베르팅겐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적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를 꿈꿨지만 2차 대전의 발발로 1941년 8월 고교 졸업과 동시에 통신병으로 징집됐다. 전쟁 막바지 그의 부대는 폴란드, 그리스를 거쳐 유고슬라비아 국경까지 후퇴했다. 1945년 5월 독일 패망으로 전쟁이 끝나기가 싶었는데 부대가 유고슬라비아 군대에 포위되면서 전쟁포로로 전락했다. 포로수용소에서 3년 7개월간 끔찍한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 공산주의 체제의 허구에 치를 떨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씨앗이 되었다.

1948년 12월, 마침내 수용소를 나와 7년 만에 고향 독일로 돌아왔다. 이후 신학대학을 나와 고향 베르팅겐의 직업학교에서 교사로 생활하던 1953년 북한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수용소에 갇혔다 귀국한 지베르트 신부를 우연히 만나면서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결심하게 된다. 1958년 4월 사제 서품을 받고 한국에 가겠다고 말하자 주위에선 ‘석 달도 못 버티고 돌아올 것’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일본 국적의 비료운반선을 타고 7주간의 항해 끝에 1958년 7월 5일 밤 부산항에 닿았다.

부산에 도착해 1년 정도는 대청동 중앙성당에 머물렀다. 이때 본명인 안톤 트라우너(Anton Trauner)에서 발음하기 좋은 한글 이름으로 개명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조그만 강에서 유래된 트라우너에서 힌트를 얻어 물을 뜻하는 한자 ‘하(河)’와 안톤은 이탈리아의 성인 안토니오로 고쳐 부르면서 ‘하 안토니오’가 되었다.

음식을 잘 못 먹어 장티푸스에 걸리는 등 문화적 차이로 한국생활에 고비가 찾아올 무렵 동향성당이 개소됐다. 외국인 수녀들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어 식사 문제가 해결될 거로 판단한 교단 측이 1959년 10월 7일 하 신부를 동향성당 초대 주임신부로 발령냈다. 남구와의 아름다운 인연이 시작됐다.

1963년 하 신부는 5년 만에 고향 독일을 방문했다. 동향성당 옆에 교육관을 짓기 위해 고향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어머니 카롤리나 여사와 재회하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섣달 자신의 집을 팔고 시립양로원에 들어갔다.

2차대전 참전·포로 등 극한 체험

훗날 한반도 통일 염원으로 짝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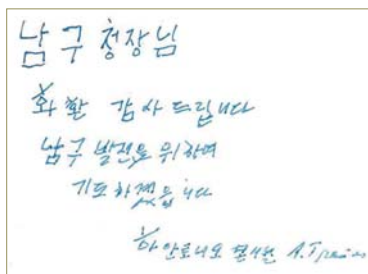
주위 반대 불구 혈혈단신 한국행

모친도 남구 주민 위해 전 재산 헌납

일생 무소유 삶… 95세 생일날 타계

“착한 백성들 만나 너무도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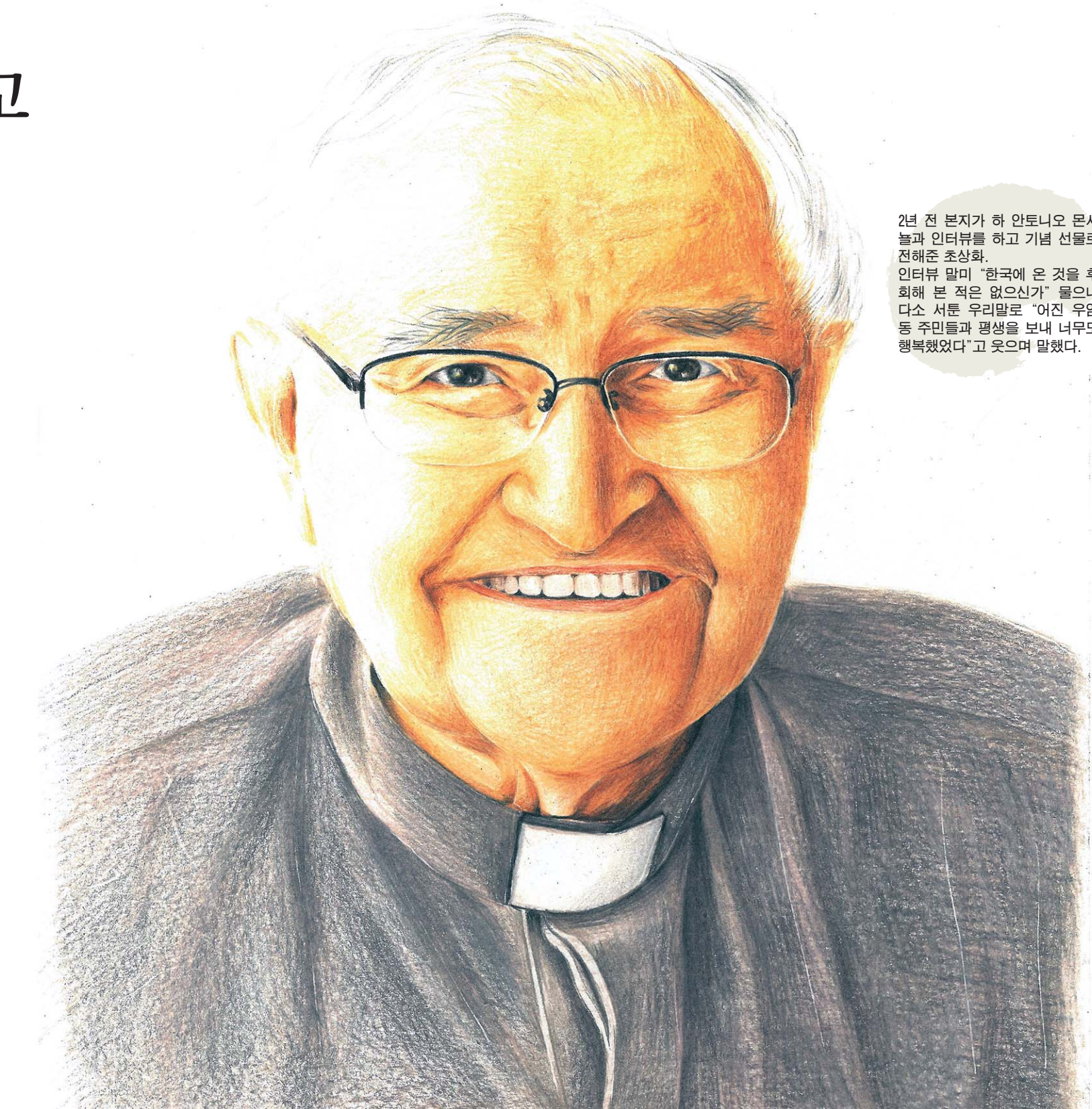
이 돈으로 동향성당 옆에 ‘사랑의 집’이라 피정선터가 세워졌다. 카롤리나 여사는 안토니오 신부와 한 번 더 헤어지고 1971년 초여름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하 안토니오 몬시뇰이 병상에서 이종철 남구청장에게 보낸 자필 엽서.

1965년 2월, 독일에서 물품 상자 64개가 도착했다. 옷가지 500여 벌과 옷감은 우암동 주민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재봉틀 10대를 남겼다. 10대의 재봉틀로 마을 처녀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치면서 한독여자실업학교(현 부산문화여고)가 탄생했다. 한때 동향성당 바로 옆에 세워진 한독여실은 한국과 독일의 앞 글자를 따 이름 지어졌다. 학교는 오랫동안 여성 기술·기능인을 배출해 사회로 진출시키는 사관학교 역할을 맡았다. 유달리 아이를 좋아하는 안토니오는 한독여실이 해운대구로 이전하면서 빈 건물이 되자 1977년부터 조산원으로 활용했다. 조산원은 이후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를 함께 보는 교회병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의원 문을 닫은 1982년까지 2만6000여 명의 새 생명을 받았다.

하 신부는 1979년 2월, 20년 간 맡아온 동향성당 주임신부를 사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창설한 푸



2년 전 본지가 하 안토니오 몬시뇰과 인터뷰를 하고 기념 선물로 전해준 초상화. 인터뷰 말미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으신가” 물으니 다소 서툰 우리말로 “어진 우암동 주민들과 평생을 보내 너무도 행복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른군대(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를 이끌었다. ‘푸른군대(Blue Army)’는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성모 발현을 계기로 결성된 국제조직으로 당시 발현한 성모가 푸른 피를 두른 데서 유래했다. 공산국가의 붉은 군대에 맞서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한국의 푸른군대는 하 신부가 1964년 맨 처음 도입했다. 무력이 아닌 평화와 기도의 힘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싶은 그의 열망이 담겨있다. 2차 대전 참전과 공산국가에서 긴 포로생활을 겪으면서 이념과 체제가 얼마나 부질없는 가를 체험했고 더욱이 조국 독일도 오랫동안 동서독으로 나뉘어 고통 받았기에 한반도 통일은 하 신부의 염원이었다.

하 신부는 1974년 5월 19일, 군사분계선 근처 임

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첫 평화통일 기원 미사를 집전했다. 이날 전국에서 1만2000여 명이 모였고 매년 5월 13일 임진각 광장에서 평화통일 기원 집회를 가진다. 이런 노력 끝에 2015년 5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그토록 소원하던 평화의 성당을 건립해 아무 때고 사람들이 모여 남북통일 기도를 할 수 있게 했다.

두 해 전 지친 노구에도 불구하고 본지와와의 인터뷰에 열성적으로 임하던 하 신부는 “한국 백성은 헤어진 부부와 같다”며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고 통일을 강조했다. 인터뷰 말미에 “적기(당시 우암동)에는 어린이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행복하다”는 그의 말이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

■ 하 안토니오 몬시뇰 주요 이력

1922년 10월 14일 독일 남부 베르팅겐 출생
1941년 8월 통신병으로 2차대전 참전
1945년 5월~1948년 12월 유고슬라비아에서 전쟁포로로 억류
1953년 북한 선교활동한 지베르트 신부 통해 한국행 결심
1958년 4월 27일 사제 서품
1958년 7월 5일 부산항 도착
1959년 10월 7일 동향성당 초대신부 부임
1964년 8월 15일 푸른군대 한국본부 창설
1965년 3월 한독여실 설립
1974년 5월 19일 첫 평화통일 기원 미사
1977년 2월 20일 교회 조산원 개원
1978년 임진각 광장에서 매년 남북통일 기도 행사
1979년 2월 동향성당 분당 주임 사임
1998년 12월 남구 1호 명예구민 선정
2015년 5월 임진각 평화의 성당 건립
2017년 10월 14일 95세로 일기 선종



1 독일 베르팅겐에서 생활하던 어릴 적 사진. 2 2차대전 참전 당시 모습. 3 동향성당 부임 초기 한복과 갓을 쓴 모습. 4 재봉틀 10대를 밑천으로 설립한 한독여실을 둘러보는 모습. 5 조산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 세례식. 6 2015년 7월 사제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류도카톤

남구 붉은 불개미 절통 방어



김정희

부산시 ‘붉은 불개미’ 대응 지원본부 운영

지난 추석 연휴 남구를 포함한 부산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감만부두 외래 붉은 불개미의 출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차원의 지원 본부가 운영된다.

현재 붉은 불개미의 추가 발견은 없지만 시민 불안감을 줄이고 향후 있을지 모를 불개미의 도상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을 총괄본부장으로

로 하는 대응지원본부에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초기대응 지원팀과 총괄대응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초기대응지원팀은 신고방법 등 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가기관과 초기 대응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총괄대응지원팀은 조기 퇴치 등 초기 방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대응지원본부는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붉은 불개미에 물렸을 때 조치방법

- 증상
 - 경도/또는 부위의 통증이나 가려움: 쏘이는 순간 따가운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어서 쏘인 상처가 가렵게 된다. 10시간 정도 지나면 고통이 생길 수 있다.
 - 중도(中度)/두드러기: 쏘이고 몇 분에서 몇 십분 후까지는 쏘인 부분을 중심으로 부기가 퍼지고, 부분적, 또는 전신에 가려움을 동반하는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중증(重症)/호흡곤란·혈압저하·의식장애: 쏘이고 몇 분에서 몇 십분 사이에 숨쉬기가 곤란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헛기증 등을 일으키거나, 더 진행되면

의식을 잃게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중증의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일 가능성이 높아, 처치가 늦어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 독개미의 독성분: 독개미의 독에는 알칼로이드인 Solenopsine(2-methyl-6-alkyl piperidin)과, 벌이 가진 독의 공통성분으로 phospholipase나 Hyaluronidase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독개미에 쏘인 경혈이 없어도 벌 독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대처 방법

- 쏘인 직후의 대처: 20~30분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컨디션의 변화가 없는지 주의한다. 경도의 증상만 있고, 증상이 약

외래 붉은 불개미(학명 Solenopsis invicta)는 이번 에 국내에 처음 발견된 종으로 몸 속에 강한 독성물질 을 가지고 있어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한다. 적갈색에 배는 검붉은 색이며 크기는 개체에 따라 3~6mm 정도다.

물리면 볼에 덴 듯한 통증과 가렵고 발진, 과민성 쇼크가 발생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만부두에서 붉은 불개미의 흔적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지난 6일 기준으로 검역 조사를 모두 마쳤다.

■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 ☎(051-600-6234), BPA비상 대책본부 ☎(051-999-3234), 119안전신고센터 ☎(119)

회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천천히 병원 진료를 받아도 괜찮다.

- 몸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 증상이 급속히 진행되면, 바로 제일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다(구급 접수가 되는 병원이 있으면 좋다). 「개미에 쏘인 적」,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전달해, 바로 치료를 받는다.
- 만일의 경우에 대비: 특히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드레날린 자가주사기트 「에피펜」을 준비해 둘 수 있다. 중증의 증상이 막 나올 시점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경도~중도(中度)의 증상에는 효과적인 항히스타민제의 내복약을 준비해 놓을 수도 있다.

 <출처: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www.env.go.jp)>